

제18회 군포

예술제

The 18rd gunpo artist festival

예술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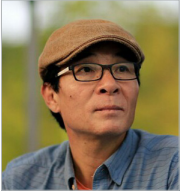
예술백신 프로젝트



FACO

사단
법인 군포 예술

모시는 글



군 포 예 총 회 장
강 신 응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 “예술백신프로젝트 – 예술동행”의 막을 올리게 되어 기쁜 마음과 더불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제를 준비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무거운 마음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즐겁고 신명 나는 예술인 한마당잔치를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그렇지 못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군포예총과 8개 지부 회원들의 정성과 예술혼이 담긴 땀과 노력의 결실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전시되는 회원들의 작품과 공연 하나하나가 소중한 군포문화예술의 자산입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예인예술제는 군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의 장입니다.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협회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만족 시켜드릴 것입니다. 또한 문인, 미술, 사진작가협회는 작품 전시와 사화집 발간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예술의힘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술은 마스크 속에 감춰진 시민들의 표현의 욕구를 대신하여 우리 사회의 신선한 공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포예총에서 발굴하는 청년예술가 스타트랩(Startrap)은 앞으로 군포의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포예술인의 축제 한마당 “군포예인예술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잠시라도 정신의 힐링과 삶의 질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전시되는 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하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를 개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대회 군포시장님, 이학영 국회의원님, 성북임시의장님과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예술팀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시민여러분 가까이에서 예술제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 회 의 원
이 학 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한국예총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군포 시민의 곁에서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인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포시에서 열리는 열여덟 번째 예인예술제 역시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예술백신프로젝트-예술동행’을 주제로 하는 이번 예술제가 팬데믹의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포 시민의 마음에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예술의 참 의미가 돋보이는 예술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포예인예술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군포시장

군포 예술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8회 군포 예인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예총 군포지회 강신웅 회장을 비롯한 8개지부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예술상 수상자이신 성주희님, 예술공로상 수상자이신 이길호의원님께도 축하말씀드립니다.

군포 예인예술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으며 우리 시의 문화예술적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시민들 앞에서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예술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시민들에게 예술공연 관람의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제의 부제인 ‘예술백신 프로젝트-예술동행’ 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포 예인예술제가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영감을 주고 군포예술인들에게는 함께 모여 교류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군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포예총 및 8개 지부의 예술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군포시의장
성복임

군포 예술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8회 군포 예인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만큼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문화예술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번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의 주제인 ‘예술백신프로젝트-예술동행’의 의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번 예술제를 준비하신 강신웅 회장과 각 협회 지부장님, 예술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군포는 다양한 매력이 넘치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이 빛나는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예총 군포지회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습니다. 군포시의회도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군포예인예술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마음의 백신이자, 지역 문화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포예인예술제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막공연

8 / 4(수) 18: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사회 안재덕

- 트럼펫 연주 ----- 트럼펫 문재호 / 건반 임진성
- 합창단 연주 -----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개회사
- 지부장단 소개
- 공로패 전달 ----- 제6,7대 군포예총 회장 강희진
- 공로상 시상 ----- 군포시의회의원 이길호 /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장 김성록
- 제14회 군포예술상 시상 ----- 제2대 사진작가협회 지부장 성주희
- 초대가수 ----- 신나

제14회 군포예술상 수상자

성주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5기 촬영지도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장 역임
- 2020 대한민국국제포스티벌 참여(예술의 전당)
- 2019 제6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DDP)



공로상 수상자

이길호

-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 군포시 정보화위원회 위원
- 군포청소년교육특구운영위원회 위원
-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 (전)제6대 군포시의원
- (현)제8대 군포시의원



공로패 전달

강희진

- (사)한국예총 군포지부 회장 (7대~8대)
- (사)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장 역임
- 군포문화재단 이사
- 군포시민대상 수상



공로상 수상자

김성록

- (현)농협중앙회 겸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지부장
- (전)NH농협은행 경기영업지원팀
- (전)NH농협은행 경기경영지원단 기획역
- (전)NH농협은행 경기현장지원단 단장
- (전)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지점장



꿀맛

8 / 4(수) 19: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작품 소개

「꿀맛」은 영국이 낳은 천재적 소녀극작가 샬라 딜레니가 19세 때에 쓴 처녀 희곡으로 영국 최고의 연극 연출가인 조안 리틀리우스 여사가 발굴하여 초연을 가진 이래 현대연극의 古典으로 자리 잡혀진 작품이다. 끊임없는 재공연 映畵化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A TASTE OF HONEY'의 유명한 주제곡으로도 우리 귀에 친숙하다. 비틀즈와 바브라스트라이선드 등의 유명가수와 악단들에 의해 수 없이 연주되어온 음악의 분위기에서 전달되어 오는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삶에 대한 애착과 페이스스를 잘게 풍겨주는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가장 솔직하게 그려준 작품이다. 특히 앵그리 영맨 이후 세대의 삶에 대한 기질과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평을 들어왔는데 종전 世代의 특질을 반항과 절규라고 한다면 「꿀맛」의 세대는 체념과 인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母女 헬렌과 조에게서 보듯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크게 원망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갖혀 있는 세계의 밖을 넘겨다보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추악한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항거하는 대신 예리한 기지와 유머로 매순간을 타 넘어간다. 다만 주인공 조가 헬렌을 비롯한 주변인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은 삶에 대한 순수한 동경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관객들의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시종 폭소를 터트리면서도 삶에 대한 짜릿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꿀맛」의 묘미인 것이다. 삶의 본질을 웃음과 눈물의 교차와 혼재로서 파악한데서 이 작품의 현대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이 연극의 무대는 런던의 한 빈민가 아파트이며 연극은 시종 이 무대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연극의 끝은 시작과 같으며 극의 이야기는 주인공 조의 일상적 경험을 펼쳐 주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정해준다.

「꿀맛」은 88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재공연 되었으며 이때 주인공 조역을 맡았던 아만다 프러머는 일약 스타로 각광 받았고 토니 연극상을 수상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아만다 플러머는 「신의 아그네스」에서 아그네스 역을 따내기도 했다. 1975년 극단 민중에서 국내 초연한 「꿀맛」에서 대한민국 연극계 최초의 스타 여배우인 윤석화를 대중에게 각인 시킨 작품으로 기억되며 윤석화 역시 뒤에 「신의 아그네스」에서 아그네스 역을 따내며 대체 불가 배우로 자리 잡는다.

출처:1985년 민중극단 꿀맛 프로그램북

[출연]



헬렌/박리디아



조/김아영



피터/조현건



지미/양동근



헬렌/주연서



제프/최근혁

[스텝]



예술감독/정진수



제작기획/조현건



무대감독/이병술



무대디자인 제작/민병구



조명디자인/김호진



음향감독/우지영



분장/윤미란

연예예술인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8 / 5(목) 19: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G – Folk Band

M.C : 안재덕

Vocal & A.Guitar 신나 / E.Guitar 서강철 / B.Guitar 남귀수 / Drum 임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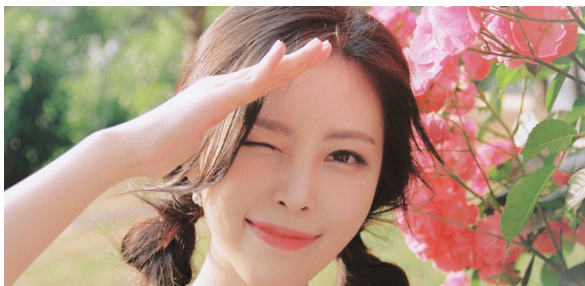
Keyboard 임진성 / Vocal & E.Guitar, Hamonica 강신웅 / Saxophone 최재훈

Old pop / Adult Con Tem Porary / Trot



키니(Kinny)

- 1, 아름다워
- 2, Happy Birthday To you – 권진원



파인밴드

- 1, 롤러코스터 – Fine / 2, L.O.V.E – Natalie Cole
- 3, Hot stuff – Donna Summer



國樂 행복을 노래하다

8 / 6(금) 19: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기획의도

국악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國樂 행복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코로나 19로 지친 군포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일상의 활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예술인들 에게는 2021년 군포예인예술제를 통한 창작활동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음 따스하고 행복한 연주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프로그램 1부

1. 꿈꾸는 비상.....작곡: 김태완

날개가 있다면 먼 바다와 산과 하늘을 날고 싶은 새처럼 광활한 바다를 마음껏 날고 싶은 마음을 회상하며 꿈꾸는 비상을 그려본다.

2. 행복을 노래하다.....작곡: 윤송언

때론 어려운 역경과 고난속에 살면서 행복한 추억이 묻혀 버리곤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이 행복함으로 마음을 적시었으면 하는 곡이다.

3. 참 좋다.....노래: 이영미 / 편곡: 김태희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 바람이 참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4. 열두달이 다 좋아.....노래: 이영미 / 작곡: 조원행

열두달의 내력을 말하며 한 해 동안 절기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 한 곡이다.

5. 민요의 향연.....작곡: 임교민

우리의 민요 중 잘 알려진 통속 민요로 엮어 새롭게 만든 모음곡이다. 세마치장단의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중모리장단이며 메나리조인 상주아리랑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경기제 아리랑을 중모리와 신나는 휘모리로 구성하여 보았는데, 전통적인 선율과 장단을 바탕으로 각 악기의 매력적인 솔로연주들과 현대적인 화성 그리고 창작 선율을 함께 넣어 다채롭게 꾸며낸 곡이다.

▶ 프로그램 2부

6. 하나의 소리를 위한 타고 (打鼓)

장구와 모듬북 대북이 인간의 두드려서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하나의 공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타고 (打鼓) 연주로서 대북의 웅장함과 모듬북의 다이나믹함 장구의 화려한 연주곡이다.

7. 향단아 노래: 이에린 / 작곡: 최기호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단아에게 표현하는 곡으로서 춘향이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엿볼수 있는 곡이다.

8. 이별가.....노래: 이에린 / 춤: 최윤정 / 작곡: 최기호

운명과도 같은 춘향이의 이별! 어느곳에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도련님 곁과 같은 춘향이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 곡이다.

9. 판굿.....전통문화예술단 누리

팽과리 장구 북 징 소고 악기치배들이 상모를 쓰고 화려한 판을 벌인다. 부포상모놀음과 소고놀음의 멋진 춤사위는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열두달 상모놀음은 판굿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국악실내악단 비상



한얼국악예술단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사회 안재덕

국악실내악단 비상 가야금:김문선, 권태은 /해금:이경주 /소금,대금:한정실 /피리,태평소:박준구 /신디:윤송언 /타악:강정민,최성묵 /노래:이영미

한얼국악예술단 유형열,이재일, /무용:최윤정 /소리:이에린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안영권,감중문,정대석,강성욱,최귀환,김지원 스텝 신숙희,김옥선,감희진,정승리,박준구 촬영 조성재 홍보 박윤희

무용협회 정기공연

8 / 7(토) 19: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축하공연(군포시 청소년 무용단)

홍슬은 - 봄을 그리다. / 박지윤 - 불꽃처럼

- 지전춤 : 김은희, 이연주, 정성현

지전춤은 망자를 위한 무속의례인 동해안 오구굿 중 하나로 지전을 한손 혹은 양손에 들고 망자의 넋을 불러 부정을 가시게 하고 원과 한을 풀어주어 극락으로 천도하는 춤이다.

- 사제도(司祭導) : 오승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파랑 : 신한서

끝을 알 수 없고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넓은 바다 위에서는 오늘도 파도가 일렁인다. 검고 푸른 바다 위 우리는 어디로 바쁘게 휩쓸려 흘러가고 있을까

- 눈먼사랑 : 오승우, 정성현

연오와 세오녀의 설화를 담은 현대판 러브 스토리, 한국 창작 무용

- 진도북춤 : 김은희

진도북춤은 故 박병천 선생에 의해 널리 알려진 춤으로, 농요에 맞춰 일꾼들을 격려하여 흥을 돋우어 주던 두레굿에서 소박한 농촌의 복만을 따로 독립시켜 춤으로 승화시킨 특유의 북춤사위와 가락이 농축된 결실의 작품이다.

- 나의 땅! : 연출 - 김은희 안무 - 오승우

광복절을 맞이하여,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만세 외침을 춤으로 표현한다

출연: 김은희, 오승우, 정성현, 이연주, 조하늘, 여나연, 김희연, 김가을, 이다엘, 김민성, 신한서, 박용민, 홍슬은, 박지윤

- 생각의 끝에서 : 박용민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도전해보도 늘 실패만 하였기에 더 이상은 '도전'이 두려워졌다. 그렇지만.. '극복' 해야 한다는걸 알기에 깊은 생각에 빠저본다.. 그 '생각의 끝에서' 난.. 다시 일어 날 수 있다고

- First Step : 이다엘

어떠한 존재가 태어나 땅을 딛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표현, 발을 내딛는 방법, 몸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과 걷고 뛰는 방법까지 몸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과정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 창작무용: 파(波)

출연진 : 김은희, 오승우, 이연주, 정성현, 조하늘, 김희연, 정성현

1장 : 잔잔하고 고요함.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심연의 감정들이 휘어지고 휘어져 요동치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2장 : 파동.

고요한 수면에 무심코 던져진 존재가 파동을 일으킨다. 한 점에서 시작된 감정은 이내 몰아치는 파도가 되어 나를 덮친다.

3장 : 본래의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몰아치던 감정은 고요한 물결이 되어 부드럽게 끊임없이 흘러간다. 다시 심연의 감정들이 요동치지만..

예술총감독: 김은희 사회:최남희 조명: 조성현 사진: 김병국 스템: 곽성연, 정윤희, 김병국, 오지연

출연진



김은희



이연주



정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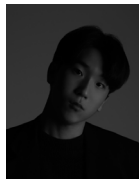
이히라



오승우



김민성



박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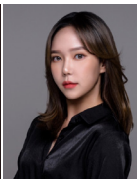
신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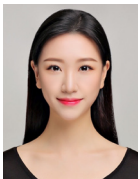
여나연



이다엘



조하늘



김희연



제26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8 / 8(일) 15:00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PROGRAM]

01. where Eagles soar S. Reineke
 ◆ 윈드오케스트라
02. 내맘의 강물 이 수 인
 Mein Herr Marquis J. Strauss
 ◆ Sop. 장하나
03. 청산에 살리라 김 연 준
 Funiculi Funicula Luigi Denza
 ◆ Bar. 우재기
04. William Tell Arr. W.G Leidzen
05. 오페라 “마술피리 “ Papagena-Papageno W.A.Mozart
 ◆ Sop. 장하나, Bar.우재기
06. I Need to be in love Arr. K.Morita
 ◆ A.Sax. 빈재현
07. Piano Concerto NO.14(K.449) 1st.Mov. W.A.Mozart
 ◆ Pf. 이승연
08. 아리랑 랩소디 이 지 수
 ◆ Pf. 이송은
09. The Rock Hans Zimmer
10. Glenn Miller Medley Glenn M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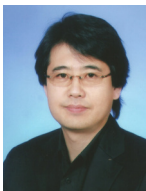
윈드연주자 명단

지휘 황일화 Fl. 한수연 / Ob. 김예은 / Bn. 하도연 / Cla. 안종현, 이다영, 장기업 / A.Sax. 빈재현 / T.Sax. 김상명 / Bar.Sax. 하동주 / Hn. 김태우
 김효정 / Tp. 조성훈, 안재찬, 남금우 / Eup. 남기진 / Tb. 조민철, 이진영, 유광수 / Tuba. 한지원 / Perc. 한송이, 고은총 / B.Guitar. 백진희

지휘

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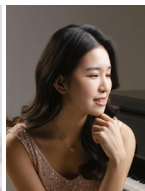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황일화



피아노/이송은



피아노/이승연



바리톤/우재기



소프라노/장하나



문인협회/미술협회/사진작가협회

찾아가는 시화, 미술, 사진展

8 / 3(화) ▶ 8 / 17(화)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찾아가는 전시회는 군포시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 환경조성과 시화, 미술, 사진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마련된 전시회입니다.

찾아가는 시화展

박정희 김용하 조병무 박헌태 김동호 이학영 전현하 이옥분 권태진 이형철 권영기 박소명 민선숙 원순옥 임현숙 최남희 송병훈
한명숙 박현정 김수경 김옥례 김동애 양윤정 오한나 임병용 이은희 유경희 장윤숙 박재영 노춘래 최혜영 이진옥 이은영 장은아
김계중 최영찬 이재욱 김영희 김동균 채찬석 김영래 박건자 차영순 이순금 최영애 김용선 김형숙 윤여선 오은희 김현숙

찾아가는 미술展

배선한 강희진 이상훈 임혜랑 전창봉 김훈섭 김민경 신재은 서홍자 이화영 황순례 신미정 지미혜 이미우 서봉원 권경애 백동열
홍 윤 장동률 권정인 김선희 김수선 김순심 김유란 김장희 김정희 김태은 김희정 도숙영 류주연 문미진 민유경 박선경 박영복
박영희 박정내 박찬욱 박현숙 서소남 성영옥 신정희 유연화 유영주 이경애 이선자 이영진 이지수 이현숙 임나영 전연실 전연순
최용천 최윤선 최형순 한옥이 홍순용

찾아가는 사진展

임효례 박정식 성주희 이안순 김채수 한종원 류재만 김금순 김영숙 윤순영 이지경 이해순 정명렬 흥현숙 한응열 이상경 김용두
이준용 박삼수 오세충 이경옥 이영남 이영우 최용자 강민주 송두상 윤석구 김향엽 유영한 정연택 김이환 조영수 한상택 황진이
황해옥 윤세명 한채수 정명호



『오늘도 격리 중입니다』

- 1부 거꾸로 걷다
- 2부 멀고도 가깝다
- 3부 함께 가다

시

김용하 조병무 박정희 박현태 김동호 이학영 전현하 이옥분
 권태진 이형철 권영기 민선숙 원순옥 임현숙 최남희 송병훈
 박소명 한명숙 곽현정 김수경 김옥례 김동에 오한나 이은희
 양윤정 임병용 유경희 장윤숙 박재영 노춘래 최혜영 이진옥
 이은영 장은아 김계종 최영찬 이재옥 김영희 김동균

수필

채찬석 김영래 박건자 차영순 이순금 오은희 유시경 김용선
 김형숙 윤여선

소설

김현숙



예술동행

예술백신 프로젝트



FACO

사단
법인 **군포예총**

www.gunpoart.or.kr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시문화예술회관2F)
TEL: (031)392~4511 / FAX:(031)392~3773

주최 |   FACO | 한국예총
군포지회

주관 |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